KASPAR LAURENZ
빌더 카이저의 36가지 인상

2026년 8월 7일 - 10월 31일
키츠뷔엘

빌더 카이저의 36가지 인상 연작에서는 티롤 지방의 상징적인 산맥인 빌더 카이저가 변화하는 빛과 색채, 그리고 다양한 대기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다. 이 연작의 출발점은 빌더 카이저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강렬한 색채로 담아낸 초기 회화 작품으로, 오늘날 No. 1/36이라는 작품 번호를 지닌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카스파르는 다양한 빛의 조건에 관심을 넓혀 갔다. 이 연작에서 중요한 것은 지형의 정확한 재현이 아니라 풍경이 지닌 정서적·회화적 효과다.

그의 예술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프랑스 인상주의 회화의 전통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색면회화였다. 그는 인상주의 특유의 풍부한 색채와 빛에 대한 표현적 접근, 그리고 색면회화가 지닌 강렬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이러한 영향은 폭넓은 색채의 사용뿐 아니라 물감의 물질성을 다루는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카스파르는 대개 수개월에 걸쳐 물감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며, 아래쪽 색층의 빛이 위층을 통해 은은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섬세한 색채의 뉘앙스를 만들어 낸다.

카스파르 라우렌츠는 다양한 예술적 영감을 결합하여 감정이 중요한 내용적 요소를 이루는 작품군을 발전시킨다. 붓질의 형태는 각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빠르고 몸짓이 느껴지는 리드미컬한 선으로 이루어진 회화는 여러 겹의 색층으로 섬세하게 구축된 부드러운 작품들과 대비를 이룬다. 이 연작에는 작가가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여기는 유럽 예술사와 문화사에 대한 참조 또한 담겨 있다.

전시에 소개되는 대형 회화 작품들은 거의 건축적인 특성을 지니며 강한 공간적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카스파르의 작품에서는 언제나 부드럽고 거의 친밀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기념비적인 작품 Der Wilde Kaiser No. 3/36이다. 가로세로 약 2미터에 이르는 이 작품은 전시에서 가장 큰 작품 중 하나로, 옅은 분홍빛이 지배하는 온화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녹아내리는 눈으로 인해 공기 중에 옅은 안개가 드리워진 어느 봄날의 빛을 담아낸 것이다.

이러한 부드러운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No. 21/36은 강렬한 주황색과 노란색을 통해 눈부신 빛에 대한 카스파르의 매혹을 강조한다. 따뜻한 색조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떠올리게 하며, 화면이 지닌 힘찬 에너지를 더욱 강화한다.

“그의 회화에서는 풍경과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독특한 울림이 느껴진다.”

작은 크기의 회화, 색채 연구, 준비 단계의 구성 작업 역시 이 연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형 회화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내며 연작의 조형 언어를 확장한다. 새로운 색채의 조화, 화면 구성, 회화적 기법이 이 작품들에서 실험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작의 시각적 언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전시에는 카스파르 라우렌츠가 연작의 개념을 삼차원 매체로 확장한 실험적인 도자 작업들도 함께 소개된다. 이 도자 작품들은 종종 개별 회화와 병행하여 발전하며, 각각 고유하고 다층적인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연작은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카스파르 라우렌츠는 명확한 완결성을 지닌 작품군을 중심으로 작업하며, 따라서 No. 36/36을 끝으로 빌더 카이저에 대한 회화적 탐구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작가의 다음 대규모 연작은 바다의 광활함을 주제로 삼아 그의 회화를 한 층 더 추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